

[나의 초보 양육기 7] 준비한만큼 성령님 의지해야

이양실 집사 / 2002 / 페이지 수: 2

저는 일대일 동반자 및 지도자 과정을 마치고 98년 8월 처음으로 양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당시에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 가슴이 떨리고 과연 내가 양육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을까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.

그러나 일대일 양육은 먼저 받은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이므로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양육하여 성장하는 믿음

처음 양육하게 된 자매는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임신 중이라 집으로 방문하여 만났습니다. 그 자매는 너무도 열심히 준비하고 또 만날 때마다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던지 제가 도전이 되어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며 양육했던 경험이 있습니다.

일대일 양육 과정에서 서로 진지하게 삶을 나누게 되었고 무엇보다 동반자의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.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가운데 상처가 치유됨을 보게 하시고 삶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, 말씀대로 순종하는 모습, 가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. 또한 서로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 응답도 받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.

일대일 양육을 하면서 얻은 것은 본인이 먼저 은혜를 받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. 또 동반자를 잘 인도하여 양육의 비전을 심어 주는 것으로 양육자의 사명을 새삼 깨달은 것입니다. 일대일 양육 하는 동안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습니다. 처음에는 성령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내 열심으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.

한번은 다른 때보다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동반자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이야기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습니다. 속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겉으로는 내색도 할 수 없었고 무엇인가 방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교만함과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방해한 것 같았습니다. 그날은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 모를 정도로 진땀을 흘렸습니다.

성령님이 하시는 양육

그후로 일대일 양육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깨달았고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한 영혼을 실족 시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. 이런 경험으로 항상 기도로 준비했고 감사함으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.

누구나 처음에는 실수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양육하시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.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지만 지금은 양육자로서 첫 걸음 내딛기를 두려워하는 분들께 꼭 권하고 싶습니다.